【 2017.7.31(월) 강원일보 】

/ 도내 기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14년째 1위 굳건 전국구 기업

토목건축-요진건설산업

원주 요진건설산업(주)이 토목건축 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14년째 도내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30일 공시했다. 도내에서는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토목건축 분야에서 시공능력평가액 7,915억3,500만원으로 14년째 1위를 지켰다. 전국 41위로 100위 내 도내 업체는 요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원주 에스지건설(주)이 1,241억2,600만원으로 2위, 고성 현대아산(주)이 1,232억720만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강릉 신화건설(주)(1,225억4,600만원), 영월 (주)효성(958억5,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요진건설산업(주)이 올해도 1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대규모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앞으로 요진건설이 전국의 유명브랜드 건설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주)은 조경분야(1,106억8,000만원)와 산업환경설비 분야(1,046억5,300만원)에서도 1위에 올랐다.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는 토진종합건설(주)이 각각 262억1,900만원, 222억6,1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유재규기자 koo@

도내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순위

(단위:백만원)

	업체명	소재지	시공능력평가액
1	요진건설산업㈜	원주	791,535
2	에스지건설㈜	원주	124,126
3	현대아산㈜	고성	123,272
4	신화건설㈜	강릉	122,546
5	㈜효성	영월	95,857
6	㈜우일	강릉	86,953
7	㈜대건	춘천	85,236
8	정상종합건설㈜	원주	83,275
9	대림종합건설㈜	정선	75,212
10	동일건설㈜	원주	61,150

〈자료: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압도적 선두 2위와 3배 차이

시설물유지관리-삼우아이엠씨

춘천 (주)삼우아이엠씨가 시설물유지관리 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는 지난해 전국 건설공사 실적을 포함해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 도내 결과를 30일 공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춘천 소재의 (주)삼우아이엠씨가 시공평가액 4,231억9,182만원을 기록, 최상위에 올랐다. 이는 2위에 오른 원주 에스원건설(주)의 시공평가액 1,338억2,378만원보다 3배 이상에 달한다.

정선 대림종합건설(주)과 영월 (주)효성은 각각 시공평가액 1,251억8,551만원, 1,156억9,02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춘천 (주)대양은 825억7,044만원으로 5위에 안착했다.

소재지별로 원주지역에서는 에스원건설(주)을 포함해 대상이앤씨(주)(728억7,453만원), (주)한국표준공무사(634억6,875만원), 남광건설(주)(622억3,717만원) 등 모두 4개의 업체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윤종현기자 jjong@

【 2017.7.31(월) 강원도민일보 】

2017 도내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 현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1위 요진건설산업	1위 토진종합건설
2위 에스지건설	2위 신진종합건설
3위 현대아산	3위 아라온건설
4위 신화건설	4위 효성건설
5위 효성	5위 명화건설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1위 토진종합건설	1위 요진건설산업
2위 신진종합건설	2위 신화건설
3위 거산종합건설	3위 에스지건설
4위 대일종합건설	4위 효성
5위 이지아이건설	5위 현대아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위 요진건설산업
2위 현대아산
3위 대건
4위 효성
5위 신화건설

그래픽/한규일

요진건설산업 시공능력평가 3관왕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 1위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공능력평가에서 강원도내 3관왕을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도회장 오인철)가 30일 발표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올해 토목건축(7915억3500만원), 조경(1106억8000만원), 산업환경설비(1046억5300만원)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건축분야 2위는 원주 에스지건설(1241억2600만원), 3위 고성 현대아산(1232억7200만원) 순이며 토목분야 1위는 평창 토진종합건설(262억1900만원), 2위 원주 신진종합건설(212억2700만원), 3위 강릉 아라온건설(211억8500만원)이 차지했다. 건축분야는 1위 토진종합건설(222억6100만원), 2위 신진종합건설(216억3400만원), 3위 춘천 거산종합건설(214억9500만원) 순이다. 조경분야는 2위 강릉 신화건설(688억3700만원), 3위 에스지건설(499억3000만원) 순이며, 산업환경설비분야 2위는 현대아산(575억1100만원), 3위 춘천 대건(508억9400만원)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관호

추가 올림픽 진입도로 평균공정률 77%

지방도456호선 68.9% 그쳐

경기장 12곳 공정률 96.6%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수촌과 경기장 연결도로를 비롯한 일부 올림픽 진입도로 평균공정률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올림픽 경기장 12곳과 올림픽 진입도로 16개 노선 중 경기장은 96.6%, 진입도로는 8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가된 진입도로 7개 노선 공사는 경기장 건설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도 456호선(월정3거리~차항)의 공정률은 68.9%로 올림픽 진입도로 중 가장 공사가 늦다. 군도 12호(유천~용산), 평창 진부 IC~호명교 노선은 각각 74.4%, 76.6%를 기록했다. 또 선수촌~경기장, 강릉역~경기장 각 구간 진입도로 노선은 각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가된 올림픽 진입도로 7개 노선 평균공정률은 77.8%다. 기존 진입도로 9개 노선 중 군도13호(싸리재~용산)노선의 공정률이 80.3%로 가장 낮았다. 도 관계자는 "추가 진입도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2017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 성적표는…

'삼성' 4년째 1위 속 '현대' 거센 추격

삼성, 시평액 줄어 '불안한 선두'
현대, 내년 1위 탈환 관심집중
대우 '빅3' 진입… 대림 '4위'
현대산업, 8위로 상승 '두각'

삼성물산이 4년 연속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1위 자리를 지켰다. 주택경기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시공능력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동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탓에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됐다.

▶관련기사 2·3·12·13·14면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 시공능력 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16조5885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 평가는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 지표로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2017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황
(토목건축·단위:억원)

순위	업체명	평가액	변동폭
1	삼성물산	16조5885	-
2	현대건설	13조7106	-
3	대우건설	8조3012	1▲
4	대림산업	8조2835	1▲
5	포스코건설	7조7393	2▼
6	GS건설	7조6685	-
7	현대엔지니어링	6조8345	-
8	현대산업개발	6조665	2▲
9	롯데건설	5조4282	1▼
10	SK건설	4조6814	1▼

올해는 전체 건설사(6만4848개)의 88.9% 수준인 5만768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삼성물산은 올해도 토목건축 시평액 1위에 올랐지만 시평액 자체는 지난해(19조3762억원)보다 감소했다.

반면 작년에 이어 2위를 유지한 현대건설은 시평액이 13조7106억원으로 전년(13조2774억원)보다 다소 늘어나면서 지난해 6조원을 웃돌았던 삼성물산과의 격차를 2조원대로 크게 줄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시평액에선 1위와 2위가 자리를 맞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평액 상위 톱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들은 지난해와 동일한 가운데서도 6곳의 성적표가 바뀌었다.

포스코건설(7조7393억원)이 3위에서 5위로 2단계 내려앉으면서 대우건설(8조3012억원)과 대림산업(8조2835억원)이 각각 3위와 4위로 한 단계씩 상승했다.

GS건설(7조6685억원)과 현대엔지니어링(6조8345억원)은 순위 변동 없이 6위와 7위를 이어가게 됐다. 8~10위권의 경우 현대산업개발(6조665억원)이 지난해 10위에서 8위로 뛰어오르며 롯데건설(5조4282억원)과 SK건설(4조6814억원)은 각각 9위와 10위로 밀렸다.

100위권 건설사 중에선 48곳의 순위가 올랐고 43곳은 내렸다. 9개사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올해도 주택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순위 오름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 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성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순위 상승은 서서히 정체 상태로 접어든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수건설과 남양건설, 삼호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벗어난 일부 건설사들은 부진을 딛고 선전했다.

박경남기자 knp@

2017 시공능력평가 11~50위(토목건축, 단위:억원)

연번	업체명	평가액	순위변동
11	(주)한화건설	39,035	-
12	(주)부영주택	36,747	-
13	(주)호반건설	24,521	-
14	삼성엔지니어링(주)	18,516	27↑
15	금호산업(주)	16,445	-
16	한신공영(주)	16,273	2↑
17	계룡건설산업(주)	15,127	-
18	(주)한라	15,029	3↑
19	코오롱글로벌(주)	14,898	1↑
20	(주)태영건설	14,794	1↓
21	두산건설(주)	14,058	5↓
22	쌍용건설(주)	13,507	1↑
23	신세계건설(주)	13,476	3↑
24	두산중공업(주)	12,981	10↓
25	(주)한양	12,649	3↓
26	(주)KCC건설	12,258	1↓
27	(주)반도건설	12,122	17↑
28	아이에스동서(주)	11,946	15↑
29	(주)삼호	11,809	3↑
30	(주)효성	11,548	1↓
31	대방건설(주)	10,816	1↓
32	(주)서희건설	10,349	4↓
33	(주)한진중공업	10,257	9↓
34	화성산업(주)	10,211	3↓
35	중흥토건(주)	9,953	7↑
36	동부건설(주)	9,642	9↓
37	제일건설(주)	9,180	19↑
38	(주)동원개발	9,140	4↓
39	중흥건설(주)	8,575	6↓
40	우미건설(주)	8,151	4↓
41	요진건설산업(주)	7,915	3↓
42	(주)서브원	7,693	9↑
43	(주)라인건설	7,417	3↓
44	(주)협성건설	7,203	41↑
45	고려개발(주)	7,192	6↓
46	(주)서한	7,077	6↑
47	양우건설(주)	7,008	14↑
48	경남기업(주)	6,722	13↓
49	삼보이엔씨(주)	5,945	5↑
50	(주)금강주택	5,848	16↑

공동도급 제한 '10대社' 그대로…

'빅10' 체제, 내부 순위만 변동
등급별 공사에선 소폭 변화
제일건설 등 8개사 1등급 진입
2등급업체 작년보다 11곳 늘어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토건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에도 소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평액 순위는 8월1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이 적용되는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에는 변화가 없다.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지난해 10대사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포진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지난해보다 1계단씩 끌어올리며 3·4위에 자리했고, 지난해 3위였던 포스코건설은 5위로 내려앉았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0위에서 2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SK건설은 지난해 순위보다 1개씩 밀린 9·10위를 기록했다. 삼성물산(1위), 현대건설(2위), GS건설(6위), 현대엔지니어링(7위) 등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최근 들어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등급공사에는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5000억원 이상 1등급 업체는 지난해 55개사에서 59개사로 4개 더 늘어났다. 제일건설·양우건설·금강주택·금성백조주택·라인산업·이수건설·경동건설·CJ건설 등 8개사가 1등급으로 진입한 반면 대우조선해양건설·한림건설·삼환기업·극동건설 등 4개사는 1등급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라인산업의 시평액은 지난해 2524억원에서 올해 5379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 4688억원으로 2등급 맨 앞에 자리했던 제일건설 역시 올해 91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볼륨을 키웠다.

2등급(5000억원 미만~1000억원 이상) 업체는 지난해(145개사)보다 11개 늘어난 156개사로 집계됐다. 동광주택·동일스위트·SG신성건설·삼도주택·라온건설·다인건설·보광건설·창성건설·동화주택·문장건설·한양산업개발·대원건설·미래도건설·에스지건설·흥성건설·반도종합건설·대양종합건설·일군토건·산이건설·두진건설·제일건설·동국에스엔씨·계성건설·동광종합토건·한일개발·성보건설산업·한성개발·대성건설·서용건설·동우개발 등 30개사가 3등급에서 새롭게 진입했다.

한편 토건면허를 보유한 3121개사 가운데 3등급(10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업체는 214개사, 4등급(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업체는 313개사, 5등급(300억원 미만~180억원 이상) 업체는 622개사, 6등급(180억원 미만~120억원 이상) 업체는 655개사, 7등급(120억원 미만) 업체는 1102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정희훈기자 hoony@

2017 시공능력 평가항목별 상위 10개사 현황 (토목건축)

순위	상호	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단위:억원)		
1	삼성물산㈜	6조8144
2	현대건설㈜	4조9130
3	㈜대우건설	4조4930
4	지에스건설㈜	3조4641
5	㈜포스코건설	3조2896
6	대림산업㈜	3조2288
7	롯데건설㈜	2조5510
8	현대엔지니어링㈜	1조9172
9	SK건설㈜	1조8696
10	현대산업개발㈜	1조7349
경영평가액		
1	삼성물산㈜	6조3537
2	현대건설㈜	5조2319
3	현대엔지니어링㈜	4조1066
4	현대산업개발㈜	3조4456
5	대림산업㈜	2조6106
6	㈜부영주택	2조3614
7	㈜포스코건설	2조887
8	㈜호반건설	1조6763
9	GS건설㈜	1조5721
10	롯데건설㈜	1조1640
기술능력평가액		
1	현대건설㈜	2조3724
2	㈜대우건설	2조2831
3	지에스건설㈜	1조9393
4	삼성물산㈜	1조7653
5	㈜포스코건설	1조7029
6	대림산업㈜	1조6599
7	SK건설㈜	1조5437
8	롯데건설㈜	1조1490
9	현대엔지니어링㈜	7696
10	㈜한화건설	7390